

# 도내 제조업체 “2분기 경기 부정적”

###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내수 침체로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도내 제조업체들은 2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회장 윤방섭)는 공동으로 도내 111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2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는 92(100이상 긍정로 밑돌아 전북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전망은 지난 분기와 이어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29일 밝혔다.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105), 설비투자(111)는 기준치 100을 넘으며 2분기 호전을 예상한 반면 영업이익(91)과 자금조달(80), 공장가동여건(89)은 기준치를 밑돌며 다음 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선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125), 섬유유복(120), 자동차(110) 업종은 2분기 경기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식음료(88)를 비롯해 종이(86), 기계부품(92), 화학관련 제품(79) 제조업의 경우는 기준치를 밑도는 것

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화학관련 업종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유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분기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BSI는 117로 2/4분기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가운데, 중소기업(85)은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며 2분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 정도인 45.3%가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꼽은 가운데,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34.5%)',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법안 시행

(6.4%)', '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4.4%)',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3.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방섭 회장은 “재정부 출범과 경기부양책 등 경기활성화 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은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감이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책당국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노동관련 제도 개선, 내수시장 활성화, 원자재가 안정 등 기업의 원가 부담 해소에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소생육데이터센터의 토마토와 마늘 재배 현장.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농업 생산 분야 첫 등록

### 농진청, '마늘·토마토 생육 정보' 국가참조표준으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마늘과 토마토 생육 정보(데이터) 2종이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공인자료인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진청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생육데이터센터'에서 환경 조건에 따른 채소 생육과 생리반응 등 신뢰성 있는 국가표준데이터 생산·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생산 등록된 채소 생육 정보는 온도에서 47.7 m였고, 평년보다 3도(C) 높을 때는 58.1m, 5도(C) 높을 때는 56.6m였다. 일 수는 각각 7.3배, 7.5배, 7.3배로 나타났다.

462.0g)였고, 평년보다 3도(C) 높을 때는 488.2g, 5도(C) 높을 때는 644.0g으로 나타났다. 일 수는 각각 18.3배, 20.4배, 24.0배였다.

농진청은 국가참조표준센터에 등록된 마늘과 토마토 참조표준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보급해 농업 빅데이터 검정과 분석, 교육,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정책 수립 같은 디지털 농업 혁신 성장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늘 토마토 외에 배추, 양파, 무, 고추,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의 참조표준을 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마늘 생육 정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시나리오(SSP2, SSP5)를 적용 연구 동안의 온도를 평년보다 각각 3도(C), 5도(C)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그 결과 마늘은 파종 71일 뒤의 식물 길이가 평년 온도에서는 47.7 m였고, 평년보다 3도(C) 높을 때는 58.1m, 5도(C) 높을 때는 56.6m였다. 일 수는 각각 7.3배, 7.5배, 7.3배로 나타났다.

또한 토마토의 생육 정보도 평년보다 온도를 3도(C), 5도(C)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토마토 아주심기 77일 뒤 열매 무게는 평년 온도에서는

한 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 참조표준센터 누리집(srdc.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팀장은 “그동안 수집된 관측 빅데이터가 정상적인 값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하면 빅데이터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채소 생육 국가참조표준 등록과 보급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디지털 농업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군산원에농협 출시

#### '채소라면' 시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9일 구내식당에서 군산원에농협(조합장 고계곤)의 우리밀과 우리감자로 만든 채소라면 출시를 기념해 시식회를 가졌다.

이번 시식회는 '지역 특색상품은 온 동네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17일 출시된 군산원에농협 신제품을 응원하고자 기획됐으며, 농협전북본부 구내식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식 테스트를 통해 제품을 평가하고 합인특가를 실시해 고객 반응 테스트를 실시했다. 향후에는 온라인 레시피 홍보, 라이브 커머스 등 온택트 프로모션을 실시해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9일 익산시 영동동에 위치한 이리동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JB옐로우 카펫 제3호' 오픈

### 전북은행, 이리동초서 오픈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9일 익산시 영동동에 위치한 이리동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번 오픈식을 진행한 이리동초등학교는 후분 주변으로 거주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 통로로 인한 차량통행이 빈번해, 등·하교 시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

다. 이에 따라 이리동초등학교 후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과 시인성이 우수한 사인 블록으로 'JB옐로우 카펫'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픈식에는 이리동초등학교 신속희 교장, 윤근식 교감, 전북은행 경기전 부행장 박종상 영동동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진 부행장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꾸준히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는 안전하게 신호를 대기하고 운전자는 어린이 인식이 쉽게 되는 'JB옐로우 카펫'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진원, 폐업 소상공

#### 철거비용 지원 업체 모집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 지원 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사업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 발생(20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소급해 지원하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도 철거비용과 재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과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등 안정적인 사업전리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일자리선터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 부안 농산물 판로 개척 '해결사'

### 부안군-부안우체국

#### 5억원 매출 성과 거둬

부안우체국이 부안지역 우수상품 온라인 판매로 성과를 거둬 온라인 쇼핑 물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작년 11월 부안지역 농수축산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이후 우체국소공물을 통해 5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위해 부안군은 지역 우수 농수축산품을 소비자 직거래방식 판매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지난해 5월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로컬상품 접근성 확대 및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를 위해 우체국과 부안우체국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이후 우체국소공물을 '부안군 브랜드관' 개선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설명회(공동), 홍보프로모션 예산지원(부안군), 포장규격·가격설정 등 현장방문 컨설팅(우체국)까지 부안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입점 판매를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 더해 2021 송년 프로모션, 2022 설명절 프로

### 국민연금, 작년 우수제안

#### 7편 선정 업무에 반영키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공단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연금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은 매년 우수 제안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8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은상 3편(50만원 상당 상품), 동상 4편(30만원 상당 상품)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미납 보험료에 대한 안내 강화(은상) ▲홈페이지 예상 연금액 조회 메뉴 추가(은상) ▲콜센터 상담 대기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상) 등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로의 업무 개선과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을 표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안에 반영됐다. 또한 공단은 선정된 우수 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 게시하거나 팩스(063-900-3212)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세요